

충청권, 바이오·모빌리티 일자리로 잇는다

- 고용노동부·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10월 1일(목)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인재가 모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일(목) 충북도청에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과 함께 충청권 광역이음프로젝트인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개별 광역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 지역 간 산업과 인재를 연결하고, 인재 양성부터 취업과 지역정착 등을 함께 지원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는 충청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에서 광역이음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바이오·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총 40억원(국비 32억원, 지방비 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이번 출범식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산업과 인재의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충청권을 하나의 일자리 생활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수현 충청남도지사, 박연병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리고 초광역 일자리 협력 의지를 다졌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광역 간 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기업·인재 동반성장 ▲충청권 공동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 ▲첨단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 프로

젝트형 인턴십 및 취업 연계 ▲권역 내 이직·이주 노동자 정착 지원 ▲광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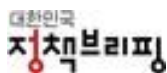
이를 통해 청년 등 구직자에게는 지역의 성장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넓히고, 기업에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새롭게 충청권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리적 여건을 토대로 대전·세종·충북·충남이 각자의 강점을 하나로 이으면 충청권은 대한민국 일자리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일자리가 이어지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변화가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충청권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윤희 (044-202-7404)
		담당자	서기관	송은정 (044-202-7410)
		담당자	주무관	김선미 (044-202-7411)
		담당자	주무관	정준수 (044-202-7409)



□ (일시) '26. 10. 1.(목) 15:40~16:55

□ (장소) 충청북도청 대회의실

□ (참석자)

- (노동부) 차관, 노동시장정책관,
대전고용센터 소장, 청주지청장
- (외부) 신 용 한 충북도지사
조 상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박 수 현 충남도지사
박 연 병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 (유관기관) 일자리 유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부울경·충청권·대경권
지역일자리 전문가 등 80여 명

□ (내용) 충청권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 (세부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5:40~16:00	'20	■ VIP 환담	
16:00~16:10	'10	■ 행사장 이동 및 등록	사회자
16:10~16:15	' 5	■ 개회 선언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6:15~16:40	'25	■ 인사말씀	차관, 충북도지사, 세종시장, 충남도지사, 대전부시장
16:40~16:45	' 5	■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 소개	영상
16:45~16:55	'10	■ 출범식 세레머니 ■ 기념 촬영	차관, 광역자치단체장